

4

셀그룹교재 산상수훈(중) 나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가?

10월 첫째 주

**진리와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절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 읽을 말씀 마 5:17-20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본문이 율법이 아닌 복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과 행하며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진리와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마 5:19)”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의미를 온전히 드러낸 율법의 도덕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중 지극히 작은 계명도 지켜야 하며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버리고” 는 “행하며” 와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범하고’ 라는 의미로 착각하기 쉽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버리고’ 의 헬라어 “뤼오” 는 ‘취소하다’ , ‘폐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9절이 주는 교훈은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계명을 폐하지 말고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고, 그대로 가르칠 뿐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

19절에 대해 도날드 해그너는 마태복음 주석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해석한 차원의 가르침을 펴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킬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진리

를 옳게 분별하고 성경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근거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목사들이 극히 소수라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들이 예수님이 폐하지 않은 계명을 버리고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목사들 중 몇 명이나 6계명(마 5:21-22)에 대해 분노하거나 욕하는 것도 살인이며, 자주 분노하거나 욕하는 자가 심판을 받고 지옥 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가르칩니까? 또한 7계명(마 5:27-30)에 대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며, 그런 상상을 자주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가르칩니까? 대부분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은 이미 교계에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의 의미를 오해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여,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마태복음 5장 21-48절에 나오는 계명대로 살아야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천국에 가더라도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맙니다.

19절의 경고와 일치하는 고린도전서 3장의 구절들을 보면, “나무나 풀이나 짚” 으로 대강 얼기설기 지은 집과 같이 엉터리 해석과 설교를 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고전 3:10-15). 이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는 적어도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설명한 것처럼 설교하지 않고 그것을 버리는 목사들은 대개 더 큰 위험에 처합니다. 그들은 그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들 중에도 지옥에 갈 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마 7:22-23). 따라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가르치는 일이 설교자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배운 바른 복음과 진리를 지인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열심히 나누고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과 진리를 가르쳐줄 수 있는 유일한 교사일 수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눠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② 진리를 행하며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특히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설교를 위해 성경은 연구하지만 행하는 일은 등한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아니라 삶을 통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연구만 하지 말고 반드시 행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자신뿐 아니라 양 무리들을 위해 반드시 행하며 가르쳐야 합니다(요 17:19, 딤후 4:16).

목회자들은 **“에스라가 여호와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스 7:10).”** 는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설교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바른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절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말만 하고 행하지 않거나(마 23:3),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만 가르치고 자신은 가르치지 않으면(롬 2:21-24) 안됩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4) 절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5:20).” 는 말씀은 산상수훈 결론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정말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그 의미를 희석시키고 왜곡시켜서 이 구절을 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권연경 교수님은 이 구절에 대해 「행위 없는 구원?」에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로서의 ‘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바울이 말하는 ‘칭의’ 혹은 ‘하나님의 의’와는 다르다.” 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신학자와 설교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로이드 존즈도 이 구절에 대해 「산상설교집 상」에서 “다시 태어난(중생한)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며 그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0절은 문자 그대로 누구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거짓되고 희석된 구원론만 들어온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설교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바로 전절인 19절의 경고를 잘못 생각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단지 천국에서 크고 작은 자가 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계명에 관한 것이고, 더 크고 중요한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단락 직후에 나오는 첫째와 둘째 반제의 지옥에 대한 경고(마 5:21-22, 27-3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널리 퍼져있는 “믿기만 하면 행함이 없어도 적어도 천국은 간다!” 라는 부끄러운 구원 사상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단 사설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십자가 강도와 임종 때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을 것입니다. 참 믿음은 믿는 즉시 순종합니다. 임종 때라도 그 믿음이 참 믿음이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셔들이고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몸으로 순종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마음으로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강도는 임종 때 회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지만(마 27:44), 입으로 짓던 죄에서 돌이켰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했습니다(눅 23:39-43). 이처럼 임종 때 회심하는 사람들도 모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모셔들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종 때 영접하는 자들이 믿기만 하면 행함이 없어도 적어도 천국에 간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케 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고전 9:20-21).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이 한 말씀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요 12:48). 그러므로 거짓 목사들에게 속아 대강대강 신앙생활하지 말고 기필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천국에 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나눔과 적용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며 가르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배운 순전한 진리를 행함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올바른 복음과 진리를 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전략들을 나누어 봅시다.